

처음과 끝, 그리고 축제 다시 태어날 노천극장

대학주보가 보내는 특별한 편지

백승철 기자 schot357@khu.ac.kr

노천극장, 그대가 떠난다고 들었다. 그대와 내가 함께 한 시간이 어느덧 56년이다. 처음 그대를 만났던 푸른 청춘들이 이제 백발성성한 노인이 됐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함께 했던 추억 역시 그 시간만큼 층층이 쌓여 남아있다.

기억하는가, 지난 1972년, 교내 유신반대 시위로 결국 학교가 45일간 휴교를 맞고 말았던 때를, 그리고 보면 그대는 서울 퍼린 군사정권의 위해 속에서도 여러 학생들을 품을 만큼 넉넉했고, 또 그 학생들이 용기 내어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장이 되어 줄 만큼 굵직했다. 비록 총학생회가 해체되고 그것이 1975년 학도호국단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그대에게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줄었다지만, 학생들의 끓는 마음을 당신은 자우지 않았다.

10여 년 만인 1984년 11월, 다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부활해 발대식을 가진 것도 그대와 함께한 자리에서였다. 이 발대식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총학생회를 다시 인정했던 1985년 3월 14일 보다도 앞선 일이었다. 비록 이후 우리학교 총학생회가 양 캠퍼스 출범과정에서 부침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런 선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1984년 그해부터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그대를 중심으로 '서클'모집에 나서며 학생문화를 다듬어갈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학생사회의 주요한 변곡점들이 그대 품에서 이뤄졌음을 기억한다. 정말 그대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의미였구나 싶다. 1986년에도 학생들은 그대와 함께했다. '전광정계준원' 입소를 거부하며 스크럼을 짜고 '전반일소 결사반대'의 구호를 외쳤던 것을 그대도 기억하리라. 또 학생들은 같은 해 5월에 4.19민주혁명을 상징곡으로 재연하며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의 함성이 메아리쳐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그대와 함께했던 이런 메아리는 1989년 '공안통치분쇄와 광주학살·5공비리' 해결 요구와 함께 '자유경희 투쟁본부'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서울퍼린 군사정권 속에서도 그대는 우리를 품어주었다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삶은 그대와 함께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협상 때마다 먼저 그대 앞에 모여 소리를 모은 후 본관으로 향했다. 본관은 매번 수 천 명의 학생을 모아 보내는 그대에 대해 투쟁을 부ரி곤 했지만, 그대는 그 투쟁을 짐짓 귓등으로 흘리며 수 십 년 간 학생들을 품었다. 덕분에 2000년에는 당산으로로부터 출발했던 1,200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 '1차 결의대회'를 갖고 본관을 가 압류하겠다는 본관 내 집기를 모두 들어내는 진풍경을 선보이기도 했다.

학생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대에게 향해왔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와서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두리번대던 곳이 바로 그대의 품 안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1962년의 '신입생환영회'를 시작으로 매년 입학식마다 당산의 품에서 새내기들의 생활을 출발했다. 70년대에는 아예 '경희국민학교', '경희남중·고', '경희여중·고'의 입학식이 함께반에 치러지기도 했다. 요즘에야 언덕 위에 올라앉아 있는 평화의 전당 너머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돌아해보면 저 어린 것보다야 그대가 맞이했던 경희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 그대가 품었던 것은 비단 불의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다. 제4회 대학제를 시작으로 매년 대학제가 그대 안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인간탐을 쫓기도 하고 카드섹션을 선보이기도 하며 만연한 웃음을 뽐냈다. 그대와 함께 하던 매 행사마다 즐거움이 가득했다.

그대와 함께하며 학생들은 '새로움'의 순간을 목도하기도 했다. 1977년 5월이 대표적인 순간이었지. 그 날, 당시 안에서는 국내 최초의 '에어리크 댄스'가 선보여졌다. 개교기념식 행사 석상에서였는데, 여자 28명과 남자 24명이 '걷기, 달리기, 스윙밍, 자전거타기 등의 동작'을 선보였다. 그날 자리했던 사람들의 표정들이 기억나는가? 생전 처음 보는 퍼포먼스에 사람들의 놀라운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입학에서 졸업까지 그대는 우리를 성장시켰다

그중에서도 지난 1989년 양 캠퍼스가 한 데 모여 '경희가족통일 한마당'을 열었던 것은 그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이다. 서울캠퍼스의 '고환통일제'와 국제캠퍼스의 '서천대통제' 마지막 날이었던 5월 26일, 이날 한자리에 모인 양 캠퍼스 학생 1,000여 명은 '서로의 단결'을 외치며 그대 안에서 하나의 경희임을 재확인했다. 양 캠퍼스 학생 400명이 각각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도 했는데, 3대 1로 국제캠퍼스가 이겼다(그 때엔 수원캠퍼스였지만).

1999년 개교50주년 기념행사는 또 어떠했는가? 몰아치는 비속에서 우원좌왕하던 사람들과 이런 행상날에 사람들의 머리 위를 모두 가려주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던 그대의 모습이, 아직도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긴 세월 동안 최후반이나 남아드는 투석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온 그대가, 정작 기념행사날 쏟아지는 폭우를 가려주지 못해 찢대던 그 모습이구나! 결국 우산을 퍼든 사람들은 내리는 비와 열에서 찢리는 우산 꼬챙이에 짜증을 내며 어느덧 허름해진 그대에게 투덜대곤 했다. 그래도 그로부터 10년 후인 개교60주년 기념 '경희 열린 음악회' 때는 비가 없었지 않은가.

이런 그대가 지난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SPACE21사업 때문에 주글한 모습을 하고 덩그러니 내버려져 있었으니,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한때 경희의 자부심이란 소라관은 둘러쳐진 펜스에 갇혀 시나브로 남아있다.

하지만 완전히 쇠락해보이면 외관과는 달리, 그대는 그 사이에도 여전히 넉넉했다. 2012년 2학기부터 그대는 소라관 앞마당을 텃밭으로 내주었다. '도시농부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올해도 그 텃밭을 가꾸며 먹거리문제부터 환경개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이제 안부를 고해야 하고, 또 이런 순간이 와버렸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는 않지만, 그대이기에 괜찮다고 애써 믿어본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입학식처럼 졸업식도 온전히 그대 품 안에서 벌어지는 그대의 몫이었다. 정을 나눈 학생들과 헤어지는 일을 몇 번이든 그대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대 위에 새롭게 세워질 글로벌 타워에서, 또 그 앞의 잔디공원에서 이제까지처럼 새로운 만남이, 즐거움이, 날카로운 지적이 생츠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새로운 만남을 고대한다. 그대가 있어, 나는 전진으로 행보했다.



노천, 그대 안에서 하나의 경희였음을...

2015년 6월, SPACE21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노천극장이 철거된다. 1959년 완공된 노천극장은 5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경희구성원과의 크고 작은 일상을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장소다. 이에 우리 대학주보는 경희기록관과 과거 대학주보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경희인과 함께한 역사를 되짚어 봤다.



① 4년간 펜스가 설치된 소라관 주변은 풀이 무성해졌다
② 대학제에서 축전, 대동제 등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도 행사의 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③ 1972년 유신반대시위가 치을 시작된 장소 역시 노천극장이었다
④ 1962년 신입생 환영회 이후 매년 입학식들이 이곳에서 처음 모였다

⑤ 91년 8월에 열렸던 청년학생통일대축전 폐막식 등 번곡점마다 노천극장은 주요한 장소였다
⑥ 졸업생들을 떠나보내는 것 역시 노천극장의 역할이었다
⑦ 1999년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당시 비가 많이 와 사람들이 우비를 입고 우산까지 썼다
⑧ 이제 허름해진 소라관은 오는 20일 철거돼, 당분간 주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959년 10월 완공 관객 2만 명 수용

노천극장 56년의 역사

남기원
경희기록관 계장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는 대규모 행사 진행이 가능한 장소가 두 군데 있다. 하나는 야외 공연장인 노천극장이고, 다른 하나는 실내 공연장인 평화의 전당이다. 둘 중에서 먼저 지어진 것은 물론 노천극장이다. 노천극장은 1959년 9월에, 평화의 전당은 그로부터 40년 후인 1999년 10월에 완공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노천극장은 대규모 실내 공연장을 지을 여력이 없었기에 선택된 대안이었다고 한다. 노천극장을 계획하던 당시 서울캠퍼스에는 1954년부터 시작된 '대학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본관, 체육대학관(지금의 네오르네상스관), 문과대학관, 등용문, 교신타, 대운동장 등이 줄줄이 건설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맛스럽고 웅장한 실내 공연장이라는 것은 아직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학업 외 활동을 지원하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펼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는 공연장을 구상하게 되었고, 결국 채택된 것이 그리스의 원형극장과 같은 형태의 야외 공연장이었다.

"대강당"을 뒤로 마루고 선택된 공사였지만, 노천극장을 짓는 일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다. 우선 적합한 부지를 찾아야 했다. 다행히 문과대 앞 낮은 지대에 있던 소운동장의 생김새가 노천극장의 입지로 적합했다. 문과대에서 대운동장 쪽으로 끼고 돌아가는 둔덕은 반원형의 스탠드로 조성하기에 알맞았다. 스탠드가 끝나는 곳에 무대를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우면 그럴듯한 대규모 야외 공연장이 탄생될 것 같았다.

가장 큰 문제는 무대 구조였다. 야외 공연장이기에, 관중들의 이목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무대의 소리를 객석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건설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국내에는 마땅히 참고할 자료가 없었다. 결국 무대를 설계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그 결과 의미 있는 레퍼런스라 채택된 것이 미국의 할리웃 볼(Hollywood Bowl)의 사례였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할리웃 볼은 클래식과 팝을 비롯한 각종 문화공연이 열리는 1만 8천석 규모의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이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노천극장과 규모도 비슷하고, 자연지형을 적절히 이용해 타원형으로 건설한 방식도 우리의 경우와 유사해서 이 무대 건축물의 구조를 차용해 노천극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58년 6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노천극장은 청춘의 열정과 패기가 발산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축제 때가 되면 노천극장은 젊음의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 찬다. 응원제 혹은 초청 가수들의 공연 때 모인 학생들은 어깨를 걸고 같은 노래, 같은 율동, 같은 구호를 외치며 하나가 된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타원형의 둔덕을 비스듬히 깎은 후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스탠드를 만드는 동시에, 그 끝부분에서는 무대 건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무대를 덮을 아치형 지붕 공사가 까다로웠다. 폭 27m, 높이 15m, 깊이 11m의 아치형 지붕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큰 사고도 있었다. 한 번은 업자의 부주의로 콘크리트가 계 굽기 도 전에 틀을 뜯는 바람에 지붕이 내려앉아 여러 명의 인부들이 다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16개월 동안 연인원 5천 명의 인부가 동원된 끝에, 노천극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 때문에 소라관이라 불리게 된 무대는, 객석에까지 소리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8개의 아치를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의 입학식과 졸업식이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5월 18일을 전후해 거행되는 개교기념식 장소도 주로 노천극장이었다.

학교의 큰 변화를 이끈 행사도 이곳에서 많이 열렸다. 1964년에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미래메시지'가 공표된 곳도, 의과대학 및 경희의료원 설립을 가능하게 한 '동양 의과대학과의 합병식(1965년)'이 거행된 곳도 바로 이 곳, 노천극장이었다.

1970~90년대에는 학생운동 집회장소로 많이 애용되었다. 1972년 교내 유신반대 시위가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총학생회 행사뿐만 아니라 전대협·한총련 등 전국적 규모의 연합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노천극장은 청춘의 열정과 패기가 발산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축제 때가 되면 노천극장은 젊음의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 찬다. 응원제 혹은 초청 가수들의 공연 때 모인 학생들은 어깨를 걸고 같은 노래, 같은 율동, 같은 구호를 외치며 하나가 된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타원형의 둔덕을 비스듬히 깎은 후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스탠드를 만드는 동시에, 그 끝부분에서는 무대 건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무대를 덮을 아치형 지붕 공사가 까다로웠다. 폭 27m, 높이 15m, 깊이 11m의 아치형 지붕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큰 사고도 있었다. 한 번은 업자의 부주의로 콘크리트가 계 굽기 도 전에 틀을 뜯는 바람에 지붕이 내려앉아 여러 명의 인부들이 다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16개월 동안 연인원 5천 명의 인부가 동원된 끝에, 노천극